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양혜주
수성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ing Students

Hae-Ju Yang
Department of Nursing, Sus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 326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2020년 7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SPSS19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ANOVA, Cronbach's- α 계수,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39 ± 0.02 ,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46 ± 0.03 , 창의융합역량은 5점 만점에 3.33 ± 0.02 ,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3.07 ± 0.02 이었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비판적 사고성향($r=.748, p<.001$), 자아존중감($r=.642, p<.001$), 창의융합역량($r=.707,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주요영향 변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으로 67.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창의융합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a disposition towards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s factors affect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26 nursing students between July 1st and July 30th, 2020. The data was collected by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the SPSS/Win19.0 program using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39 ± 0.02 , self-esteem 3.46 ± 0.03 ,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3.33 ± 0.02 ,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3.07 ± 0.02 in nursing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748, p<.001$), self-esteem ($r=.642, p<.001$), and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r=.707, p<.001$).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which explained 67.8% of the varian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a strategy that increas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to improve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Corresponding Author : Hae-Ju Yang(Suseong university)

email: hjyang@sc.ac.kr

Received October 12, 2020

Accepted November 6, 2020

Revised November 2, 2020

Published Nov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많은 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직무역량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건 의료계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직업인으로서 기술의 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인간적인 직업적 소명의식과 가치관은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1]. 또한,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간호업무도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에[2]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실무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간호교육에서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7가지 간호사 핵심역량[3]을 기본으로 교육하고 있다[4].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임상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하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간호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역량이며[5], 간호실무에서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과 질적인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6]. 그러므로 다양한 교육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7].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6],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6,7].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간호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8], 간호대학생에게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와 전문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며,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해 준다[9]. 또한 자아존중감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10,11].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간호실무 수행에 자신감을 가지게 해 주는 역량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창의융합역량은 창의성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 사고와 독창적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역

량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격 및 창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전공지식을 융합적 관점으로 사고하여 새로운 융합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12]. 사회적 변화와 기업의 변화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면서 대학의 교육 방향도 변화가 필요하므로 각 분야에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창의융합역량을 가진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3].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 사고를 위한 통합적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4]. 이에 대학도 미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즉,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공지식 및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역량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15], 대학생의 주요 핵심역량의 한 부분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간호계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환자치료와 돌봄에 중점을 두던 단순한 간호에서 인종, 문화, 정치, 종교와 관련된 복잡한 문화 상황에서 문제해결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간호기술과 타 분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다[17].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격의료 등과 함께 보건의료계에도 융복합적 지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8].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실무를 수행할 때 절차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문제해결의 핵심이 되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할때가 있기 때문에[19] 간호대학생은 창의적인 비판적 사고를 통한 간호실무를 위해서는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보들을 통합, 이해 및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의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한 간호직 가치관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느낌과 견해이다[20]. 간호 전문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전문직 자아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서적 느낌과 견해를 가지고 다양한 보건 의료인들과 조화를 이루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스스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으면 자아개념이 높고 자존감이 향상되어 간호직에 대한 만족감과 업무수행 및 질적 간호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21].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영향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22,23],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0,11].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높아진 환자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해 치료중심의 간호에서 예방과 교육 중심의 간호로 변화하고 있으며[18], 간호서비스 수행에 지능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다른 분야의 지식을 획득, 활용 및 결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4]. 대학생에게 창의적으로 비판하고 생각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필요한 것[25]과 같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철저한 직업관으로 다양한 간호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도 창의융합역량이 요구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22,23, 26,27], 자아존중감[10,11,20]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10,11,20,28],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비판적 사고성향[20,27,29]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융합역량과의 관계 및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고 창의융합역량의 개념 정의 및 분석에 관한 연구[12,15,30,31], 창의융합역량에 필요한 교육방법의 필요성과 효과[32] 및 관련 요인[13,30]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역량을 연구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창의융합역량을 정도를 확인하고 각 변수 간의 관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각 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고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 융합역량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 중감, 창의융합역량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3,4학년 대학생으로 편의표출하였다. 연구진행은 학과장의 허락을 얻고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 및 익명성 보장과 참여동의와 포기를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공식에 따라 G*power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수를 분석하였다. 효과크기 .10, 유의수준 .05, 검정력(1- β) .95 산출한 결과 25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적정수 견해[20]에 근거하고, 탈락자 수를 고려하고 참여를 자원한 학생을 포함하여 342명에게 설문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2020년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342명 중 탈락자를 제외하고 최종 대상자 수는 326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동기, 바램, 태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Yoon[33]이 개발한 27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34]. 본 연구에서는 Park[35]의 연구에서 사용한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를 1점, '매우 그렇다' 를 5점으로 하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를 주어 측정항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3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3.3 창의융합역량

창의융합역량(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능력(creative ability), 창의적 성격(creative- personality) 및 창의적 리더십(creative leadership)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전공지식을 융합적 관점으로 사고하여(confluent thinking), 새로운 융합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confluent value creation)[12]으로, 본 연구에서는 Kim[12]이 개발하여 사용한 59문항의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 한 점수이며, 도구의 신뢰도는 Kim[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2.3.4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기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Arthur[36]가 개발한 도구(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Song과 Noh[37]가 번안하고 Kang[29]의 연구에서 사용한 4점 척도의 27문항으로 측정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ng과 Noh[3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kang[2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19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 융합역량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추후 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이 전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학년 50.3%(164명), 4학년 49.7%(162명)이었으며, 여학생 80.4%(262명), 남학생 19.6%(64명)이었다. 대상자의 성적수준은 상위 20.9%(68명), 보통 61.7%(201명), 하위 17.5%(57명)이며, 의사소통 능력은 잘하고 있다 58.3%(190명), 보통이다 40.8%(131명), 잘못하고 있다 1.5%(5명)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 56.1%(183명), 보통이다 40.8%(133명), 불만족하다 3.1%(10명)이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한다 32.8%(107명), 보통이다 63.5%(207명), 불만족한다 3.7%(12명)이었다. 대상자의 성격은 내성적 15.0%(49명), 중간성격 64.4%(210명), 외향적 20.6% (67명)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326)			
Variable.	Category	n	%
Grade	Grade3	164	50.3
	Grade4	162	49.7
Gender	Male	64	19.6
	Female	262	80.4
Academic score	High	68	20.9
	Middle	201	61.7
	Low	57	17.5
Communication ability	High	190	58.3
	Middle	131	40.8
	Low	5	1.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83	56.1
	Moderate	133	40.8
	Unsatisfaction	10	3.1
Clinical experience	Satisfaction	107	32.8
	Moderate	207	63.5
	Unsatisfaction	12	3.7
Character	Introvert	49	15.0
	Middle	210	64.4
	Extrovert	67	20.6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 융합역량,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본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9(± 0.02)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6(± 0.03)이었다. 창의융합역량의 평균점

수는 5점 만점에 3.33(±0.02)이었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07(±0.02)점이었다 (Table 2).

Table 2. Degre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N=326)

Variable	Mean±SD	Min	Max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39±0.02	2.39	5.00
Self-esteem	3.46±0.03	1.40	5.00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3.33±0.02	2.09	5.00
Professional Self-concept	3.07±0.02	2.38	3.8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보면, 성적이 상위이며(F=9.764, p<.001), 의사소통을 잘하며(F=5.368,

p<.001), 전공 만족도가 높고(F=13.041, p<.001),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F=4.342, p<.014) 대상자가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성적이 우수하고(F=8.732, p<.001), 의사소통을 잘하며(F=12.291 p<.001), 전공 만족도가 높고(F=19.683, p<.001),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며(F=4.839, p=.008), 성격이 외향적인 (F=5.011, p=.007) 대상자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융합역량은 성적이 우수하고(F=13.272, p<.001), 의사소통을 잘하며 (F=14.293, p<.001), 전공 만족도가 높고(F=19.417 p<.001),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며(F=5.759, p=.003), 성격이 외향적인 (F=6.368, p=.002) 대상자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성적이 우수하고(F=14.378, p<.001), 의사소통을 잘 하고 (F=15.847, p<.001), 전공 만족도가 높고(F=25.466, p<.001),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F=6.181, p=.002) 대상자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 간

Tabl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Creativeconvergence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6)

Variable.	Categor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Grade	Grade3	3.41±.43	1.084 (.279)		3.47±.60	.473 (.637)		3.37±.44	1.567 (.118)		3.09±.35	1.097 (.273)	
	Grade4	3.36±.39			3.44±.62			3.29±.41			3.05±.31		
Gender	Male	3.28±.41	-2.248 (.025)		3.29±.53	-2.409 (.017)		3.25±.419	-1.710 (.088)		2.98±.29	-2.446 (.015)	
	Female	3.41±.42			3.50±.62			3.35±.426			3.09±.33		
Academic score	High ^a	3.55±.43	9.764 (<.001)	a>b=c	3.67±.66	8.732 (<.001)	a>b>c	3.52±.51	13.272 (<.001)	a>b>c	3.20±.34	14.378 (<.001)	a>b>c
	Middle ^b	3.67±.41			3.45±.59			3.32±.37			3.07±.31		
	Low ^c	3.24±.38			3.23±.51			3.14±.40			2.90±.28		
Communication ability	High ^a	3.45±.43	5.368 (<.001)	a>b	3.59±.61	12.291 (<.001)	a>b=c	3.43±.44	14.293 (<.001)	a>b=c	3.15±.33	15.847 (<.001)	a>b
	Middle ^b	3.30±.39			3.29±.55			3.21±.35			2.97±.28		
	Low ^c	3.20±.31			2.92±.80			2.84±.67			2.86±.4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3.49±.41	13.041 (<.001)	a>b	3.63±.61	19.683 (<.001)	a>b	3.45±.61	19.417 (<.001)	a>b=c	3.17±.33	25.466 (<.001)	a>b=c
	Moderate ^b	3.26±.49			3.23±.51			3.18±.33			2.95±.27		
	Unsatisfac-tion ^c	3.18±.48			3.19±.75			3.06±.46			2.78±.3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a	3.47±.46	4.342 (.014)	a>b	3.59±.61	4.839 (.008)	a>b	3.44±.49	5.759 (.003)	a>b	3.15±.33	6.181 (.002)	a>b
	Moderate ^b	3.35±.39			3.40±.59			3.28±.38			3.03±.32		
	Unsatisfac-tion ^c	3.20±.42			3.18±.56			3.25±.38			2.94±.30		
Character	Introvert ^a	3.38±.35	2.852 (.059)		3.24±.63	5.011 (.007)	a<c	3.25±.45	6.368 (.002)	a<c	3.02±.32	2.879 (.058)	
	Middle ^b	3.35±.41			3.47±.56			3.30±.38			3.05±.31		
	Extrovert ^c	3.49±.46			3.59±.69			3.49±.50			3.15±.33		

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비판적 사고성향($r=.748, p<.001$), 자아존중감($r=.642, p<.001$), 창의융합역량($r=.707,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존중감($r=.489, p<.001$), 창의융합역량($r=.796,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존중감은 창의융합역량($r=.453,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Variable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r(p)	r(p)	r(p)	r(p)
Professional Self-concept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748 (<.001)	1		
Self-esteem	.642 (<.001)	.489 (<.001)	1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707 (<.001)	.796 (<.001)	.453 (<.001)	1

3.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 및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성이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적, 의사소통능력,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예측변수로 투입하고 일반적 특성 변수들 중 명목 변수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여단계적으로 회귀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검정 결과,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bin-Watson 값이 1.972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346-.750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 인자(VIF)는 1.333-2.891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는 비판적 사고성향($\beta=.385, p<.001$), 자아존중감($\beta=.343, p<.001$), 창의융합역량($\beta=.245, p<.001$)이었으며, 수정된 결정 계수(Adjusted R²)는 .678 (F=229.074, p<.001)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

은 67.8%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N=326)

Variable	B	SE	β	t	pl
Constant	.785	.089		8.832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01	.042	.385	7.199	<.001
Self-esteem	.184	.020	.343	9.431	<.001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188	.040	.245	4.673	<.001
R ² = .681, Adj R ² = .678, F=229.074(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39(±0.02)로 Lee와 Noh[38]의 3.47, Lim[39]의 3.48과는 유사한 결과이며, Lee와 Hal[6]의 3.61, Yoon[7]의 3.57, Kim[26]의 3.48, Ju[27]의 3.50에 비하면 낮은 점수이며, Park, Cho와 Park[9]의 3.32, 5점 척도를 사용한 Park[22]의 3.14,에 비하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역량이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진다고 본다면 본 연구 대상자에 비해 4학년이 많은 Lee와 Hal[6] 연구에서는 높았으며, 3학년이 많은 Park, Cho와 Park[9]의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실무를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볼 때 간호교육을 통한 향상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성적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와 임상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9,23],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 [6,7,23,39]와 임상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는 보고[6,27]와, 임상실습 만족도[22,203]와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26] 비판적 사고성향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간호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른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이며, 책임있는 행동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22] 이라고 볼 때, 간호대학생들에게 졸업 후에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46 (± 0.03)으로 Sung[10] 및 Kwon과 Yeun[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Jeon[20] 및 Jeon과 Lee[40]의 3.63,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35]의 3.71보다 낮은 점수이나 Park, Cho와 Park[9]의 2.51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성적을 비교해볼 때 Lee[40]의 연구대상자는 전공 만족도와 성적이 높은 대상자가 많고 Park, Cho와 Park[9]의 연구대상자는 대학과 전공 만족도가 낮은 대상자가 많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성적 등은 자신의 과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적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 결과는 전공만족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9,40], 전공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11]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10]와 일치하며, 성적이 높고 [40] 성격이 외향적이고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41]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귀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전공학과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여 학업에 대한 성취감과 연계된 직업에 대한 확신과 발전을 추구하게 되므로 [41] 간호대학생은 간호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간호사로서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가치를 높여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창의융합역량은 5점 만점에 3.33(± 0.02)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Tae[30]의 3.47로 보고한 결과보다 낮은 점수이며, Lee[13]의 3.43, Park[31]의 3.30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Kim과 Tae[30]는 일반대학의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계열별로 창의융합교육의 기회를 경험한 대상자

가 많았던 반면,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31]의 연구에서 계열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보건계열과 공학계열이 높았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창의융합역량을 향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정규과정뿐 아니라 비정규프로그램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의융합역량은 성적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의융합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31]의 연구에서 창의융합역량은 외향성 성격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보건계열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 전공[30,32,43]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역량을 연구한 보고는 미미하여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창의융합역량의 하위 요소인 창의적 리더십 혹은 창의성에 관한 연구만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시점으로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창의융합역량은 창의적이고 차원이 높은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지식, 기술 및 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으로 [31] 전공학문 내에서 자기 학문의 수준과 역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융합한 내용으로 교육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역량이다. 그러므로 4차 혁명시대를 살아가는 간호대학생들에게도 간호학적 지식을 다른 학문과 융합을 통한 학문영역의 확장과 고차원적인 사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역량을 향상하고 개발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3.07 (± 0.02)로 Sung[10]의 2.83, Kang[29]의 2.70, Ju[27]의 4점 환산점수 2.60, Kim[26]의 2.81, Lee와 Ha[6]의 2.94, Kim[42]의 2.81보다 높았으며, Jun[20]의 3.27는 유사한 결과이다. 전문직 간호사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연구 및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아직 학생간호사로 자아상을 확립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성적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적, 전공 만족도 [26,42] 및 임상실습만족 [6,10,23, 26,29,42]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들을 지지한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창의융합역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창의융합역량, 자아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창의융합역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6,23,26,27,38,39,42]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9,1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창의융합역량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각각의 역량과 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순으로 67.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Sung[1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영향요인이라는 보고와 Ju[33]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창의융합역량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한 보고는 거의 볼 수 없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창의융합역량의 5가지 구성요소인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격, 창의적 리더십, 융합적 사고, 융합적 가치창출[12] 중에서 한 가지 요소에 대하여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6,18,32]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리더십, 창의성에 대한 연구[18,24]들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융합역량을 다룬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창의융합역량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영향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임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연구의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창의융합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창의융합역량 정도와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연구이다. 연구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39, 자아존중감은 평균 3.46, 창의 융합역량은 평균 3.3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3.07점이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창의융합역량, 자존감과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창의융합역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창의융합역량이 높고, 자아존중감과 창의융합역량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창의융합역량이 높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창의융합역량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직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간호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하며, 질적인 간호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창의융합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향상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역량에 대한 사전연구가 부족하여 결과에 대한 논의가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융합역량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하여 추가적인 연구와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A. Lee, "A Phenomenological Analysis for the Holistic Caring of Nurse and Implication on the Nurses' Human Resource Managemen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isy, 2019.
- [2] J. W. Distler,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competenc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centered teaching strategies in an advanced practice nurse curriculu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7, pp. 53-59, 2007.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es Core Competencies and Nursing Education Learning Outcomes, 2012.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121127132143.pdf> (accessed Nov. 1, 2014)
- [4] Y. I. Han,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loyment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3, pp.144-15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3.144>
- [5] S. M. Park, I. G. Kwon,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 - 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7, No.6, pp.863-871, 2007.
- [6] M. S Lee, Y. O. H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733-8744, 2015.
- [7] J. Yoon,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4, No.2, pp.159-166, 2008.
- [8]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9] B. S. Park, H. N. Cho, B. J. Park,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2, pp.1109-1117, 2015.
- [10] M. 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8, No.1, pp18-24, 2012.
- [11]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3, pp.285-292, 2007.
- [12] C. Y.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reativity Confluence Competenc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16.
- [13] K.H.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reative Home Environ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Traits, Creative Achievement and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ph.D.dissertation,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19.
- [14]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 society in which education is desired, 2018 business report, Korea, 2018.
- [15] C. Y. Kim, K. H. Lee, "Verification of 5C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confluence competen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7, pp.89-97, 2017.
- [16] A. H. Lee, M. S. Choi,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n the College Students' Key Competencies and Diagnosis Tool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30, No.4. pp.561-588, 2014.
DOI: <http://dx.doi.org/10.17232/KSET.30.4.561>
- [17] M. J. Choi, S. W. Jin, "Development of Creativity based Creative and Convergence Subject for Nursi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14, No.3, pp.83-91, 2020.
- [18] M. J. Choi, M. Heo, "Influence of Creative 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bility:Focused on a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JKEIA)*, Vol.13, No.7, pp.487-495, 2019.
- [19] Z.C.Y. Chan,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ity in Nursing :Learner's Perspectives", *Nurse Education Today*, Vol.33, pp.558-563, 2013.
- [20] M. K Jeon,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4, pp.119-129, 2013.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3.7.4.119>
- [21] D. Arthur,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15, pp.328-333, 1995.
- [22]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227-236, 2015.
- [23] E. M. Ju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4, pp.2151-2161, 2019.
- [24] H. S. Park, K. S. Jeong,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pp.549-557, 2013.
- [25] D. H. Son, "The Basis of Integrative Education & the Role of University Colleg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3, No.1, pp. 21-32, 2009.
- [26] J. I.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9, pp.6053-6060,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53>
- [27] H. J. Ju,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8, pp.213-224,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8.213>
- [28] B. R. Jo, E. A. Yoo, S. J. Park, A. R. Jo,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by Gend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4, pp.1788-1727,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4.1718>
- [29] H. O. Kang, “A Studentt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09.
- [30] C. Y. Kim, J. M. Ta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creativity convergenc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to develop a creativity convergence instruction”,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11, No.4, pp.145-164, 2017.
- [31] G. Y. Park,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Big-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reativity Convergence Competency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8, pp.371-380, 2019.
- [32] K. H. Lee, O. S. Shin, C. Y. Kim, “A study of strategies for creativity convergence education based on creative competency through research on creativity and creative leadership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9, No.4, pp.653-676, 2015.
DOI: <http://dx.doi.org/10.17286/KJEP.2015.29.4.01>
- [33]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34]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5] S. Y. Park. “The Affection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3.
- [36] D. Arthur, “ The Deve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Newcastle, 1990.
- [37] K. Y. Soh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6, No.1, pp.94-106, 1996.
- [38] O. S. Lee, Y. G. Noh,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roblem Solving Skill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349-358,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349>
- [39] M. 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8, pp.560-568,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8.560>
- [40] H..S. Jeon, M. R. Le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643-651,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643>
- [41] H. I. Lee,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22, No1, pp.97-107, 2008.
- [42] S. J. Kim, “Effects o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ion of Nurse on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5, No.1, pp.1-10, 2018.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8.25.1.1>
- [43] J. Y. Ro, Y. H. Noh, S. Y. Lee, “A Study on the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onvergence Curriculum and their Convergence Capacity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23, No.3, pp.447-472, 2019.

양혜주(Hae-Ju Yang)

[정회원]



- 1997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1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97년 3월 ~ 2012년 2월 : 경북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수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 임상간호